

국 제 갤 러 리

양혜규 \_ 런던 아트 온 더 언더그라운드 프로젝트

ART ON THE  
UNDERGROUND

15 FOR 150

Haegue Yang, Convex Flesh and Concave Stone in Tune, 2013



MAYOR OF LONDON

Transport for London



○ 관람 안내

전 시 작 가: 양혜규, Haegue Yang (Korean, 1971- )

전 시 장 소: 런던 시내 주요 지하철역

문 의: PR Director 전민경 (02-3210-9885, 010-9601-5411 / E-mail. zoe@kukjegallery.com)

웹 사 이 트: <http://art.tfl.gov.uk/projects/detail/11822/#16>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

○ 프로젝트 소개

Haegue yang has participated in the project, entitled 15 for 150, is part of this year's celebrations of the 150<sup>th</sup> anniversary of the Tube. 15 leading international artists selected for the project reflect the diversity and international importance of London and commissioned to create new London Underground posters.

The posters will hang in June on prominent sites at four central London stations: Gloucester Road, Southwark, St. James's Park and London Bridge and enrich the journeys of millions of people on the Tube every day. In contrast to the sterile perception of public environments, poetic works by Haegue Yang evoke a sense of tenderness and intimacy. She 'planted' the image of a human hand outstretched towards a carved stone hand in the London Underground. The poster, *Convex Flesh and Concave Stone in Tune* suggests dichotomies of nature and technology, and draws attention to the Tube's mystical, cave-like qualities.

양혜규는 런던 지하철 개통 150주년을 기념하는 아트 커미션 전시 *15 for 150* 에 참여한다. 런던의 문화적 다양성 및 국제적인 중요성을 반영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총 15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런던 지하철의 새로운 포스터 시리즈 제작하였다.

각 포스터는 금년 6월부터 4개의 주요 지하철 역, Gloucester Road, Southwark, St. James's Park and London Bridge 등에 전시되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 백 만 승객의 일상을 풍요롭게 할 예정이다. 양혜규는 무미건조한 공공환경과 대조되는 시적인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부드럽고 친밀한 감성을 떠올리게 한다. <볼록한 신체와 울룩한 돌의 공명Convex Flesh and Concave Stone in Tune>은 이국적인 수풀 안에 놓인 돌에 음각된 손이 실제 손과 접촉하는 순간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작가는 도심의 공공 공간에 시각적으로 식물을 심고 대중교통의 일상적인 이동 경로를 보다 비밀스럽고 신비한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 작가소개

양혜규 (1971년 생, 베를린과 서울 거주)는 1996년 독일로 이주한 이래 지금까지 국제적인 무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주요 개인전으로는 <복수도착(Arrivals)>(오스트리아 브레겐츠 미술관, 2010), <셋을 위한 목소리(Voice Over Three)>(서울 아트선재센터, 2010), <목소리와 바람(Voice and Wind)>(뉴욕 뉴뮤지엄, 2010), <내부자의 온전성(Integrity of the Insider)>(미국 미니애폴리스 워커 아트센터, 2010) 등이 있으며,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 아르세날레 참여 및 한국관 개인전 <응결(Condensation)>을 동시에 열었다.

근래의 주요 활동으로는 2013년 스트라스부르 근 현대미술관 및 오베트 1928의 개인전, 2012년 뮌헨 하우스 데어 쿤스트 및 제 13회 카셀 도쿠멘타(dOCUMENTA 13) 와 2011년 미국 아스펜미술관,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미술관, 2010년 서울의 아트선재센터, 2009년 제 53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단독참여 및 아르세날레에 참여한바 있다.

2013년 하반기에는 노르웨이 베르겐 쿤스트할(Bergen Kunsthall) 및 글래스고 조각 스튜디오(Glasgow Sculpture Studios) 등에서도 각각 개인전을 예정 중이다.

**KUKJE GALLERY**

○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이미지 편집은 사전 동의 없이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양혜규

*Convex Flesh and Concave Stone in Tune*

<볼록한 신체와 울룩한 돌의 공명>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